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제식과 실물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and Extant Objects
of the Republic of Korea's Military Decorations

엄태용

EOM Taeyong

I. 서론

II. 무공훈장 제식과 실물 분석

1. 1950년 10월 제식과 실물
2. 1951년 8월 제식과 실물
3. 1963년 12월 제식과 실물
4. 1967년 2월 제식과 실물
5. 1973년 11월 · 1984년 1월 제식과 실물

III. 무공훈장 제식과 실물 종합 고찰

1. 시기별 무공훈장 제식 변화의 특징
2. 무공훈장 등의 패용 방식
3. 태극무공훈장 수여 현황 및 훈장번호 분석

IV. 결론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제식과 실물 연구

엄태웅 국립서울현충원 학예전문경력관

taeyongeom@korea.kr

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과거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제식과 현전 실물에 대하여 분석 및 고찰하였다. 먼저, 무공훈장의 제식 변화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상황에 따라 1950년 10월, 1951년 8월, 1963년 12월, 1967년 2월, 1973년 11월·1984년 1월 제식의 5개로 구분하고 각 제식별 상세 제원과 도식의 세부 내용을 살피는 한편 이를 실물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그동안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1950년 10월 제식의 실물과 소장처를 밝혔으며, 과거 미확인된 일부 훈장에 대해서도 1952년 미국 촬영 실물 사진을 새롭게 발굴하여 제시한 성과가 있었다. 수여 사례가 드문 태극무공훈장은 현재 확인 가능한 소장처를 모두 밝힘으로써 향후 연구 및 학예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공훈장의 제식과 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앞서의 분석을 토대로 시기별 제식 변화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1950년 제식에서는 무공훈장의 등급과 디자인이 최초로 고안되고, 1951년 제식에서는 훈장의 명칭을 고유화하는 한편 등급별 독자적 중앙 도안이 구상되었다. 1963년 제식에서는 인헌훈장이 추가되고 등급별 수 형태를 변경하였다. 1967년 제식에서는 훈장 등급별 디자인이 통일되고 1973년·1984년 제식에서는 훈장 크기,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다. 이와 같은 시기별 무공훈장 제식은 1963년 제식까지의 디자인A와, 1967년 제식 이후의 디자인 B로 구분할 수 있다. 훈장의 패용 방식은 1955년의 「훈장패용규정」과, 1963년 「상훈법」 등에서 정해졌는데, 규정과 실제 무공훈장 등의 패용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기록원 소장 『태극무공훈장(훈장부)』의 분석을 통해 태극무공훈장의 수여 현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와 실물 훈장 뒷면에 새겨지는 훈장번호 등에 대하여 살필 수 있었다. 훈장부의 내용으로부터 각 등급별 무공훈장의 수여가 대체로 계급의 고하에 따라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51년 말에 제정된 「무공훈장수여기준에 관한 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훈장부에는 총 309건의 훈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모두 1961년 7월 3일 이전 발급 건에 해당한다. 훈장번호의 순서는 1954년 전후로는 대체로 수여 시기를 따라가지만 그 이후는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훈장부와 현전 실물의 훈장번호를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가 6건, 미일치하는 경우가 2건 확인된다. 훈장부와 실물을 함께 살피면 서로 다른 제작 건에 중복된 훈장번호가 부여된 경우가 16건 확인된다.

주제어 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 상훈제도, 6·25전쟁, 베트남전쟁

투고일자 2025. 9. 15. | 심사일자 2025. 10. 29. | 게재확정일자 2025. 11. 7.



I. 서론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훈장 제도가 도입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훈장조례」를 통해서였다. 이때에 최고훈장인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을 비롯하여 모두 4종류의 훈장을 제정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건국공로훈장령」(1949.4.27.), 「무공훈장령」(1950.10.19.) 등 각 훈장마다 개별 법령이 제정되었고, 이후 「상훈법」(1963.12.14.), 「상훈법시행령」(1967.2.28.)에 모든 훈장 관련 사항이 통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훈장 중에서도 무공훈장은 가장 많은 발급 수량을 차지한다(이신재 2022:361). 무공훈장은 자칫 개인의 생명이 희생될 수 있는 전투 상황의 공훈을 근거로 수훈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특별하다. 그럼에도 무공훈장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등급 태극무공훈장 수훈자의 공적을 조명 또는 검증하는 정부주도의 문헌들은 일부 발간되어 왔고(손규석 2003; 국방부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2017), 무공훈장제도 일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또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김정훈 외 2013; 방종식 2004; 정병재 2006; 정재환 2016; 최영민 2002; 황성원 외 2007). 또한 2010년대 이후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무공훈장 관련 기록물들이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시기 무공훈장제도 운영의 구체적 실상에 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나종남 2019, 2021; 김유석 2021; 이신재 2022). 이 연구들은 종전의 공훈록적 시각 혹은 제도 개선적 시각을 탈피하여 대한민국 무공훈장제도의 역사적 운

영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무공훈장의 제식과 실물을 주제로 한 분석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¹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수여는 시기적으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전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으로 현전 실물은 육군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서울현충원 등 호국보훈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소장되어 있다. 무공훈장은 제식적 측면에서 비교적 자주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상훈법시행령」 제정 이전에는 등급별로 독자적인 훈장 제식과 명칭을 가지고 있어 그 형태가 다양하였다. 타 훈장과 차별화되는 무공훈장의 제식적 복잡성은 생명을 담보로 수여되는 무공훈장의 특별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한편, 현전 실물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어렵게 하거나 현행 훈장 제식과의 차이로 인한 의문점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일례로 육군본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6·25 무공훈장 주인공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무공훈장을 소급 수훈하는 경우 1950년대에 수여됐어야 할 원래의 훈장 명칭과 실제 발급되는 훈장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²

훈장 제식을 포함한 정부 상훈 관련 문헌 자료로는 『상훈편람』(총무부 1984), 『대한민국 훈장제식변천사』(행정자치부 2003), 『상훈법령연혁집(Ⅰ)』(1901년~1964년)』(총무처 1988) 등이 발간되었다. 이 문헌들은 훈장 제식 변화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관련 법령이 담긴 관보 자료 등을 몇 가지의 분류를 통하여 모아 놓는 등 일정한 가치가 있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분석을 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문헌들에 담긴 요약된 훈장 제식은 원 내용이 실린 관보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세부적인 표현과 도식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1 국내 민간 군사유물수집가의 비정규논문 기고(박종래 2024), 국외 수집가가 모아 놓은 온라인 자료(“Order of Military Merit”, Korean Medals 한국메달. 2025.11.9. 접속. <https://koreanmedals.com/military-merit>) 등을 통해 무공훈장 제식 변화와 일부 실물이 요약적으로 소개된 사례는 있다.

2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동수 병장은 당시 금성총무무공훈장의 수여가 결정되었고 2022년 유족에게 소급 전수되었는데, 훈장이 현재 제식에 따라 제작되었으므로, 금성(金星) 명칭에 해당하는 별이 훈장 수(綬)에 부착되지 않았다(문경시 2022).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2019년 4월 23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2019.7.24. 시행, 2022.1.4. 개정)이 제정됨으로써 출범하였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먼저 그동안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제식과 실물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후 그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기별 훈장 제식 변화의 특징과 패용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는 한편, 원전 자료인 『태극무공훈장』의 분석을 통하여 태극무공훈장 수여 현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와 실물 훈장번호에 대한 분석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판별과 관리,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명으로써 조국을 지킨 호국용사들의 선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무공훈장의 제식과 실물 분석

1949년 4월 23일 총리령 제11호로 「훈장도안심의위원회규정」 5개 조항이 마련되고³ 「건국공로훈장령」(1949.4.27.)과 「무궁화대훈장령」(1949.8.13.)이 제정되었다. 동년 6월 3일 국무회의(제55회)에서 「군훈장 약장 제조에 관한 건」을 의결하여 “군훈장, 상이장, 종군장의 3종을 제작하여 국방부령으로 제식을 제정하여 적절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식 훈장제

도의 도입 이전 임시공훈기장을 제정하여 7월 15일에 최초로 수여식을 개최하였으며⁴, 9월에는 훈장 도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⁵ 6·25전쟁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10월 18일 「무공훈장령」이 제정되어 무공훈장의 제식을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1963년 이후 「상훈법」 및 「상훈법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는 다른 훈장의 제식 규정과 함께 통합되었다.

이 장에서는 무공훈장의 제식을 크게 5개로 구분하여 그 세부 내용과 실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1950년 10월 제식과 실물

이 훈장 제식은 최초로 일등부터 사등까지 4개 등급의 무공훈장의 상제 제원과 도식을 규정하였다. 이듬해 8월에 제식이 개정되기까지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 적용되어 그동안 현전하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당시 발급분을 촬영한 사진과 일부 기관의 소장 사실이 확인된다.

1) 일등무공훈장

이후의 태극무공훈장에 해당하는 최상위 등급의 무공훈장이다. 이 훈장의 제식은 <표 1>과 같다. <표 1>의 상제 제원과 도식은 「관보」에 수록된 내용을 기재

3 「훈장도안심의위원회규정」 제1조 각종 훈장의 도안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훈장도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 훈장도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 조직한다. 제3조 위원장은 총무처장, 부위원장은 총무처 상훈국장이 된다. 위원은 훈장 도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이를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총무처 상훈국 기정(技正)으로써 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임시훈장은 십자모양의 무훈발군장, 전공장, 특별상이군인장, 육군군인상이장, 종군장 등 5종을 도안과 함께 정하였는데(“임시훈장제정”, 1949.6.26. 동아일보, 2면; “임시훈장제정, 전공장병에게 수여”, 1949.6.26. 조선일보, 2면), 실제 수여식에서는 종군장 24,303명, 전공장 1,860명, 상이장 2,009명, 총 28,172명에 대한 수여가 있었다(“무훈 만대에 빛나라”, 1949.7.16. 경향신문, 2면). 무훈발군장의 실물이 국외 군사유물수집가 컬렉션에서 확인된다(“The George Notarpole Collection”, Korean Medals 한국메달, 2025.11.9. 접속. <https://koreanmedals.com/the-george-notarpole-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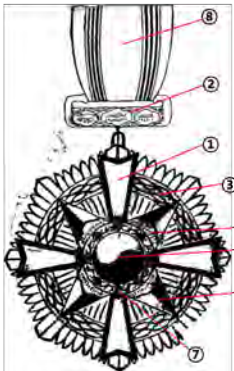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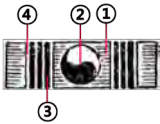
5 “훈장도안모집규정”, 1949.9.29. 동아일보, 2면. 1. 공로자의 각훈장의 도안을 각 등급별로 원도(原圖), 채색도, 단면도, 분해도를 작성할 것. 2. 도안에 대한 제식과 유세(由緒)를 해설할 것. 가. 을지훈장. 무공이 발군한 육군에게 수여하는 금은제이며 을지문덕을 상징하고 5등급으로 할 것. 나. 충무훈장. 무공 발군한 해군에게 수여하는 금은제이며, 충무공을 상징하고 5등급으로 할 것. 다. 화랑훈장. 유공한 무관에게 수여하는 금은제이며 화랑도를 상징하고 5등급으로 할 것. 라. 소성훈장. 유공한 문관에게 수여하는 금은제이며 명재상 을파소의 “소”, 정치가 이익의 호 성호(星湖)의 “성”을 취한 것인데 문관 훈장으로의 상징을 충분히 표현하고 5등급으로 할 것. 마. 문화훈장. 문화발달에 유공한 자에게 수여하는 금은제이며 문화의의를 표징하고 5등급으로 할 것(하략). 1949년 12월 13일 개최된 109회 국무회의에 「훈장도안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전문가에 위탁 결정키로 한다”는 의결이 있었으므로, 공모를 통한 도안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것이며, 제원에 기재된 훈장 각 부분별 명칭에 대한 도식에서의 표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여 도식 각 부분에 번호를 달고 부분별 명칭을 우측에 별도 기재하였다(이하 동일).⁶

표 1 1950년 10월 일등무공훈장 제식

구분	상세 제원		
	지금(地金)	황금(黃金)-금판(金板)	
정장 (正章)	치수	세로 8cm, 가로 8cm	
	표면(表面)	십자형(十字形)-백색, 지주(支柱)-황색, 월계관(月桂冠)-담녹색, 화변(花瓣)-황금(조각), 태극-원색칠보(原色七寶), 사방삼각형(四方三角形)-은(銀), 루비-8개(홍색)	
	이면(裏面)	대한민국일등무공훈장 제 호	
	포수(布綬)	적6조(赤6條) 0.6cm 백지8조(白地8條) 0.8cm 가로 3.6cm, 세로 4.6cm-삼각	
약장 (略章)	약장지(地)	담청색(淡青色)	태극 지름 0.8cm
	적6조	0.6cm	세로 1.1cm 가로 3.6cm
	백8조	0.8cm	

도식 및 부분별 명칭(저자 해석)

	①	십자형-백색		
	②	지주-황색		
	③	월계관-담녹색		
	④	화변-(황금)조각		
	⑤	태극(원색칠보)		
	⑥	사방삼각형-은		
	⑦	루비(8개, 홍색)		
	⑧	포수 : 적6조, 백8조		
	①	약장지(담청색)	③	적6조
	②	태극	④	백8조

이 훈장은 동서남북 4개 방향에는 십자형의 대지(①)를, 십자지 사이로 다시 삼각형(⑥)을 배치하였다.

상세 제원에는 없지만 가장 바깥의 3번째 원에는 총 64개의 소지를, 중간 2번째 원에는 월계관(③)을 도안하였다. 안쪽에는 중앙의 태극(⑤)을 중심으로 8개의 적색 루비(⑦), 화변(④)을 도안하였다. 루비 사이에도 문양이 있으나 제원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루비 개수인 8과 3번째 원의 64개의 숫자는 각각 8괘와 이를 중첩한 64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장 지름은 8cm로 모든 등급 훈장 중 가장 크며, 나머지 3개 등급의 훈장의 지름은 6cm로 동일하다.

일등무공훈장은 유일하게 상단의 수와 하단의 정장을 연결하는 가로형의 판을 부착하였다. 이 가로형 소형판은 도식 부분 번호 중 ②에 해당하는데 <표 1>에서는 상세 제원 내용 중 이 부분의 명칭으로 지주(支柱, 황색)를 연결지었다. 1951년 8월 태극무공훈장 제식에서 章板으로 기재된 ②는 지주라는 명칭과 도식의 해당 부분이 다소 걸맞지 않은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 제식의 다른 훈장의 상세 제원에는 지주 명칭이 확인되지 않고, 태극무공훈장의 도식에서 유일하게 ② 부분만이 역시 다른 훈장의 도식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므로 일단 이와 같이 연결지었다.⁷

포수와 약장에서 1개의 줄을 조(條)로 표기하였는데, 적6조, 백8조는 좌·우 양쪽을 합쳐 적색 줄이 6개, 백색 줄이 8개라는 의미로, 포수와 약장의 조의 개수가 같다. 지(地)는 바탕을 의미하고 약장지(畧章地) 담청색은 약장의 바탕색이 담청색임을 뜻하며, 포수의 바탕색은 누락되었다. 1951년 5월 24일 무공훈장령 개정으로 포수 및 약장의 바탕색을 담청색으로 하고 적색 조를 삭제, 백색 8조(0.8cm)로 통일하였다.

또한 중요한 변화로서 1950년 12월 18일 「무공훈

6 원 관보에 기재된 厘(cm), 종(縱, 세로), 횡(橫, 가로) 등의 한자식 표현은 현대식 표현(아라비아 숫자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원문 명칭 표기는 한자로 되어 있으며 이해를 위해 한글과 병기하거나 일반적 명칭인 경우 한글만 표기하였다(이하 동일).

7 <표 5> 1951년 8월 태극무공훈장 제식에서 ④ 부분이 4尖支柱의 표현과 연결되기 때문에 <표 1>의 지주(支柱)가 ⑥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사방삼각형이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지가 모호해진다. 지주와 사방삼각형이라는 표면적 명칭만을 고려했을 때는 후자쪽이 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장령」개정으로 포수 중앙에 필요한 경우 금성 또는 은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금성-은성-무성의 세부 구분이 추가됨에 따라 각 훈장별 3개 세부 등급, 총 16개의 훈장 등급 구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훈장별 3개 별 등급 구분은 1963년 12월 「상훈법」 제정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이 1950년 10월 제식의 훈장, 그중에서도 특히 수여자가 제한된 태극무공훈장의 경우는 그동안 실물이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제식의 일등무공훈장은 <그림 1>과 같이 현재 4건의 소장 사례가 확인된다.⁸



그림 1 1950년 10월 제식 일등무공훈장 현전 실물 A: 백선엽 훈장('51.7.26., 7호, 개인), B: 심일 훈장('51.7.26., 육군박물관), C: 최용남 훈장('51.10.30., 13호, 전쟁기념관), D: 손원일 훈장('51.10.30., 1호, 해사박물관).

이 훈장은 제식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례상 정장이 수 부분보다 다소 과도하게 크다. <그림 1>의 실물 모양은 모두 제식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백선엽, 손원일 훈장은 수가 없다. 심일 훈장이 가장 온전하며, 1951년 5월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수의 담청색 바탕과 백8조의 선이 비교적 뚜렷하다. 최용남 훈장 역시 수 부분이 잘 남아 있지만 외부에 장기간 노출된 탓인지 색이 바랬으며, 뒤쪽의 경우 보다 온전한 색이 남아 있다.

2) 이등무공훈장

이후의 을지무공훈장에 해당하는 2번째 등급의 무공훈장이다. 이 훈장의 제식 및 실물은 <표 2>와 같다.

이 훈장은 일등무공훈장과 일부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차이가 있다. 크기는 2cm 가량이 작으며 4개의 십자형 대지(①)는 약간 더 크다. 대지 사이로 삼각형 대신 도점(②)이 있고, 가장 바깥쪽 원은 소지 대신 원형을 따라 월계관으로 장식되었다. 중앙의 태극 도안(⑤), 그리고 제식 상 서술은 없지만 태극 주위에 루비와 이를 연결하는 시슬 도안은 동일하며, 화변(④)의 수가 8개로 늘어났다. 중앙과 바깥 원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으며, 소수 및 약장은 적색 4조, 백색 6조로 각 2개씩 줄어들었다. 1951년 5월 「무공훈장령」 개정으로 포수 및 약장의 바탕색을 자색(紫色)으로 하고 적색 조를 삭제, 백색 6조(0.6cm)로 통일하였다.

이등무공훈장의 실물 사진은 1952년 7월 미국에서 촬영된 것이다(국가기록원 1949).⁹ 소수 및 약장의 색이 1951년 5월 개정안의 자색보다는 남색에 가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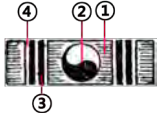
8 심일 훈장, 최용남 훈장은 저자가 직접 촬영하였다. 백선엽 훈장은 백선엽장군기념재단 2023:70, 손원일 훈장은 해군사관학교박물관 1997:139;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2009:48에서 인용하였다.

9 <표 3, 4, 6>, <그림 2>의 '52. 7. 미국 전달 훈장의 실물 사진도 출처가 동일하다. 훈장의 실물과 함께 다음 예시와 같은 사진 설명카드가 동봉되어 있다. "C-7382. REPUBLIC OF KOREA DECORATION. Taekuk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 Medal with Gold Star. 4x5 transp. Photog: Al Buquor, July 1952, Pentagon Bldg., Washington, D.C. [남색 印: Reviewed for Military Security, UNCLASSIFIED, 23 DEC 1952(1),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금성태극무공훈장). 이 대한민국 무공훈장 사진 컬렉션에는 1950년 10월 제식과, 1951년 8월 제식이 섞여 있다. 사진 속 훈장들의 실제 수여 여부는 확실치 않고 견본으로서 미국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진들은 초기 무공훈장의 원 실물을 촬영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는 가치가 있으며, 실물의 현전 여부는 불확실하다.

표 2 1950년 10월 이등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구분	상세 제원			
	지금	황금(금판)		
정장	치수	세로 6cm, 가로 6cm		
	표면	십자형-백색, 도검-은, 월계관-담녹색, 화변-황금(조각), 태극-원색칠보		
	표면	대한민국이등무공훈장 제 호		
	포수	적4조 0.4cm 백6조 0.6cm		
		포수자-담청색		
약장	(약장지 미기재)		태극	지름 0.8cm
	적4조	0.4cm	세로	1.1cm
	백6조	0.6cm	가로	3.6cm

도식 및 부분별 명칭(저자 해석), 실물

	①	십자형(백색)		
	②	도검(은)		
	③	월계관(담녹색)		
	④	화변(황금:조각)		
	⑤	태극(원색칠보)		
	⑥	포수 : 적4조, 백6조, 지(地) 담청색		
	①	(미기재)	③	적4조
	②	태극	④	백6조
				
이등무공훈장('52.7., 미국 촬영)				
		[참조] 타이거 훈장(전쟁기념관)		

보인다. 또한 루비의 색이 일등훈장의 적색이 아닌 녹색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삼등 이하 훈장의 제식에서는 청색으로 기술되었다. 타이거 훈장은 유엔군 사령부 소속 8240부대 예하 유격군 타이거여단으로 활동하다 국군 편입 전 담당 미군으로부터 수여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중앙 도안을 제외하고 정장의 제식이 이등무공훈장과 거의 동일하여 주목된다.

3) 삼등무공훈장

이후의 충무무공훈장에 해당하는 3번째 등급의 무공훈장이다. 이 훈장의 제식 및 실물은 <표 3>과 같다.

표 3 1950년 10월 삼등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구분	상세 제원			
정장	지금	황금(금판)		
	치수	세로 6cm, 가로 6cm		
	표면	5각형-백지(白地), 화변-황금(조각), 도검-청색, 투모(鬚帽)-황금(조각), 루비-4개(청색)		
	이면	대한민국삼등무공훈장 제 호		
	포수	적2조 0.2cm 백4조 0.4cm		
		포수자-담청색 (포수 크기 미기재)		
약장	약장지	담청색	태극	지름 0.8cm
	적2조	0.2cm	세로	1.1cm
	백4조	0.4cm	가로	3.6cm

도식 및 부분별 명칭(저자 해석), 실물

	①	5각형(백지)		
	②	화변-황금(조각)		
	③	도검(청색)		
	④	투모(황금:조각)		
	⑤	루비(4개:청색)		
	⑥	포수 : 적2조, 백4조, 지 담청색		
	①	약장지(담청색)	③	적2조
	②	태극	④	백4조

이 훈장은 상위의 훈장과 달리 5개(오각형)의 대지(①)가 있으며 그 사이로 도검 명칭의 소지(③)가 5쌍, 15개가 있다. 중앙의 도안은 전통 투구(④)로 바뀌었고 화변은 일등훈장과 동일한 5개이다. 4개의 루비와 그것을 연결하는 시슬 도안은 동일하다. 소수와 약장은 적2조, 백4조로 바탕색은 담청색이다. 1951년 5월 「무공훈장령」 개정으로 포수 및 약장의 바탕색을 남색(藍色)으로 하고 적색 조를 삭제, 백색 4조(0.4cm)로 통일하였다. 삼등훈장의 실물 사진은 제식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중앙 도안의 바탕색이 적색인 점을 새롭게 알 수 있다. 수와 약장에 은성을 달아 등급 차이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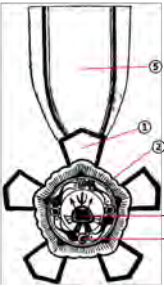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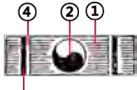
4) 사등무공훈장

이후의 화랑무공훈장에 해당하는 4번째 등급의 무공훈장이다. 이 훈장의 제식 및 실물은 <표 4>와 같다.

표 4 1950년 10월 사등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구분	상세제원			
정장	지급	황금(금판)		
	치수	세로 6cm, 가로 6cm		
	포면	5각형-백지, 화변-황금(조각) 투모-황금(조각), 루비-청색		
	이면	대한민국사등무공훈장 제 호		
	약장	적 0.2cm 백색2조 0.2cm 포수자-담청색 (미기재)		
약장	약장지	담청색	태극	지름 0.8cm
	적2조	0.2cm	세로	1.1cm
	백2조	0.2cm	가로	3.6cm

도식 및 부분별 명칭(저자 해석), 실물

	①	5각형(백지)		
	②	화변(황금:조각)		
	③	투모(황금:조각)		
	④	루비(청색)		
	⑤	포수 : 적1조, 백2조, 지 담청색		
	①	약장지(담청색)	③	적2조
	②	태극	④	백2조
	 			
사등무공훈장 (52.7., 미국 촬영)	사등무공훈장 (수여일 불명, 개인)			

이 훈장은 삼등훈장과 같이 대지(①)가 5개 이면 서도 끝이 바깥으로 돌출된 것이 차이점이다. 유일하게 대지 사이의 장식이 없으며 화변(②)이 중앙 원 전

체를 두르고 있다. 중앙 도안은 전통 투구로 삼등훈장과 동일하며, 4개의 루비가 있는 점도 같지만 그 사이의 원형이 없어지고 작은 점이 1개씩 들어 있는 백·흑색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1951년 8월 제식에서는 곡옥대(曲玉帶)로 표현되었다. 소수와 약장은 적2조, 백4조로 바탕색은 담청색이다. 1951년 5월 「무공훈장령」 개정으로 포수 및 약장의 바탕색을 홍색(紅色)으로 하고 적색 조를 삭제, 백색 2조(0.2cm)로 통일하였다.

사등무공훈장은 사진이 1건, 현전 실물 1건¹⁰⁾이 확인된다. 루비 색이 청색이 아닌 홍색인 점이 제식과 차이가 있다. 제식에는 없지만 삼등훈장과 달리 중앙 도안의 바탕색이 청색이다. 소수 및 약장의 색은 1951년 5월 홍색으로 개정된 내용과 동일하다. 현전 실물 뒷면에 순한글의 표기가 있으며, 사등급 훈장의 수여 수량이 매우 많음을 감안할 때 표기 훈장번호(제152호)가 상당히 빠른 것에 해당한다.

2. 1951년 8월 제식과 실물

최초의 제식을 규정한 지 약 1년 뒤인 1951년 8월 19일 「무공훈장령」을 개정(1951.9.9. 시행)하여 훈장의 명칭을 일등~사등에서 태극(太極), 을지(乙支), 충무(忠武), 화랑(花郎)으로 변경하였다. 정장(正章)의 제식은 기존의 것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상당한 변화를 주었는데, 디자인상의 전통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이 때 정해진 등급별 훈장의 제원과 디자인 등은 6·25전쟁, 베트남전쟁 이후 1967년 「상훈법시행령」에 따른 전면 개정이 있기 이전까지 무공훈장 제식의 기본 골격을 이루며 줄곧 유지되었다. 이 시기의 제식은 이전에 비해 각 훈장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현이 기재되고 있으며, 외래어를 지양하고 전통적 명칭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10 “한국군 4등 무공훈장”. 또또삼촌의 잡동사니. 2025.7.27. 접속.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bt3840&logNo=221667858795&referrerCode=0&searchKeyword=%EB%AC%B4%EA%B3%B5%ED%9B%88%EC%9E%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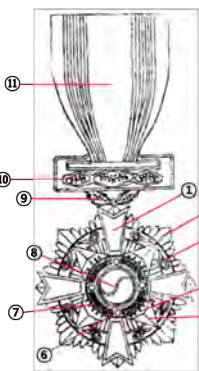
1) 태극무공훈장

기존의 일등무공훈장에 해당하는 이 훈장의 제식은 <표 5>와 같다. 제식 설명에 대응되는 도식상의 부분별 명칭 표기는 아직까지 기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저자의 해석에 따라 이를 표기하였다.

표 5 1951년 8월 태극무공훈장 제식

구분	상세 제원
표면	태양형(太陽形), 대4지(大4支) · 홍색칠보 소56지(小56支), 지금(地金) 각 경(經) 50mm
	서운환대(瑞雲環帶), 지금 대경 37mm 소경 29mm, 담녹색 칠보 서운(瑞雲) 8개, 금다색(金茶色) 투명칠보
	4돌지주(尖支柱), 지금 경 37mm
	무궁화 화변, 지금 4개 양각
	홍옥 4개
	괘(卦) 지금 대경 20mm 소경 12mm 금다색투명칠보
	태극 지금 경 12mm 홍청색 칠보
	장판 세로 11mm 가로 37mm 무궁화 3개
	무궁화판 2매
	이면
이면	대한민국태극무공훈장 제 호
수	담청색 세로 46mm 가로 36mm 백8조 각 1mm 필요한 때에는 중앙에 금성(金星) 또는 은성(銀星)

도식 및 부분별 명칭(저자 해석)

	①	대4지(홍색칠보)
	②	소56지
	③	서운환대(담녹색) 칠보서운 8개(금다색투명칠보)
	④	4돌지주
	⑤	무궁화 화변 4개(양각)
	⑥	홍옥 4개
	⑦	괘(금다색투명칠보)
	⑧	태극(홍청색 칠보)
	⑨	무궁화엽 2매
	⑩	장판 : 무궁화 3개
	⑪	수 : 담청색, 백8조, 금성 또는 은성(필요 시)

이 훈장은 십자형 대지(①), 56개의 소지(②), 4돌지주(④), 일등무공훈장에서는 사방삼각형), 화변(⑤), 4개의 홍옥(⑥) 중앙의 태극 도안(⑧), 장판(⑩), 수의 색과 백색조의 수(⑪) 등 1950년 10월 제식 일등무공훈장의 것을 상당 부분 계승하였다. 그러면서도 정장

의 지름 축소(8cm→6cm)를 통한 안정적 비례감 확보, 대지의 색(백색→홍색), 들쭉날쭉한 소지의 변화감, 서운환대(월계관에서 변경), 화변의 명칭(무궁화), 태극 주위 4괘(⑦)의 추가를 통한 태극기의 표현(쇠사슬에서 변경), 장판의 명칭(무궁화) 등 상당한 변화도 주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상의 세련미를 살리면서 일부 도안 · 장식 및 명칭 변경 · 추가를 통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 면모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정장의 지름은 태극훈장이 6cm로 가장 크며, 이하 3개 등급 훈장의 지름은 4.5~4cm이다.

<그림 2>는 1951년 8월 제식 태극무공훈장의 실물이다. 매우 제한된 수훈자 수로 인하여 각 현전 실물이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1951년 8월 제식 태극무공훈장 실물 A: 수여자 불명('52.7., 미국 촬영), B: 백선엽 훈장('53.4.5., 100호, 개인), C: 강문봉 훈장('53.7.17., 140호, 전쟁기념관), D: 이준식 훈장('54.7.6., 258호, 현충원), E: 국군무명용사 훈장('61.6.6., 275호, 현충원), F: 김금성(추정) 훈장('61.8.23., 364호, 현충원).

첫 번째 훈장은 1952년 7월 미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식에서의 담청색 수를 가장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전 실물의 경우 수의 색이 바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준식·무명용사·김금성 훈장은 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이며, 강문봉 훈장의 경우 앞면 색은 약간 바랬지만 뒷면의 색은 1952년 촬영 사진의 것과 거의 같다. 백선엽 훈장 수는 촬영 사진상으로는 녹색에 가까운데 추후 실물 확인이 필요하다. 1952년 촬영 훈장, 백선엽 훈장, 무명용사 훈장은 금성, 강문봉 훈장은 은성이 수 중앙에 있으며 이준식, 김금성 훈장은 무성이다. 훈장 바탕과 장판의 색은 원래 모두 금색으로, 그렇지 않은 실물은 시간 경과에 따라 색이 바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현전 실물 사례가 현재 7건 확인된다.¹¹

2) 을지무공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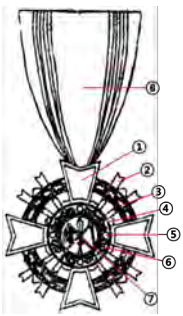
기존의 이등무공훈장에 해당하는 이 훈장의 제식 및 실물은 <표 6>과 같다.

이 훈장은 십자형 대지(①), 화변(④), 4개의 홍옥(⑤), 바깥과 안쪽 원 사이의 빈 공간, 수·약장의 백6조 등에서 이등무공훈장의 특징이 잔존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중앙 도안이 태극에서 고유의 검·지팡이·지휘봉 그림으로 교체된 것이다. 또한 대지의 색(백색→홍색), 바깥 원 그림(월계관→월계환 16매), 소지의 모양(도검에서 변경), 화변의 명칭(무궁화), 수와 약장의 색(갈색으로 변경)에서의 변화 등 이전에 비하여 고유성이 강화되었다. 정장의 지름은 6cm에서 4.5cm로 작아졌다. 다만, 제식에서 소지의 수가 20개로 표기되고 있는데, 도식과 실물은 8개(혹은 12개)로 차이가 있다.

표 6 1951년 8월 을지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구분	상세 제원
표면	태양형 대4지(홍색칠보) 소20지, 지금 대경 45mm 소경 42mm
	월계환 지금 대경 34mm 소경 26mm 금다색 투명칠보 월계엽 16매 녹색칠보
	무궁화 화변 지금 8판 양각
	홍옥 4개
	도쇄(刀鎖) 1연(連) 대경 19mm 소경 11mm 금다색 투명칠보
이면	검(劍), 장(杖), 지휘봉(指揮棒) 각 1개(홍색)
	대한민국을지무공훈장 제 호
수	수 갈색(褐色) 세로 46mm 가로 36mm 백6조 각 1mm 필요한 때에는 중앙에 금성 또는 은성 1.8cm

도식 및 부분별 명칭(저자 해석), 실물

	①	대4지(홍색칠보)
	②	소20지
	③	월계환 : 금다색투명칠보, 월계엽 16매 녹색칠보
	④	무궁화 화변 8판
	⑤	홍옥 4개
	⑥	도쇄 1연 금다색 투명칠보
	⑦	검·장·지휘봉 각 1개(홍색)
	⑧	수 : 갈색, 백6조, 금성 또는 은성(필요 시)

	
수여자 불명 (52.7., 미국 촬영)	현장간 을지훈장 (53.2.25., 전쟁기념관)

3) 충무무공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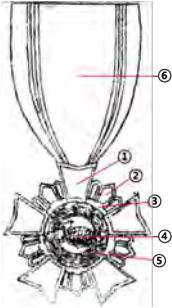
기존의 삼등훈장에 해당하는 이 훈장의 제식 및 실물은 <표 7>과 같다.

11 김웅수 수여 훈장(1954.7.6., 무성, 개인 소장), 한신 수여 훈장(1953.8.27., 무성, 93호, 전쟁기념관 소장), 김경진 수여 훈장(1954.6.25., 무성, 183호, 전쟁기념관 소장), 록셈부르크 무명용사 수여 훈장(1961.6.30. 금성, 록셈부르크 소장, 출처 : "전쟁기념관 특별기획전시전 '록셈부르크와 85인의 용사들'에서 접한 태극무공훈장에 관한 건". JR. 2025.8.25. 접속, <https://blog.naver.com/laison/223593341158>), Blackshear M. Bryan 수여 훈장(1953.10.1., 무성, 44호, 개인 소장, 출처: 박종래 2024:326), 수여자 불명 1건(개인 소장, 무성, 출처 : "대한민국 태극 무공훈장(한국전쟁~베트남 전쟁)". 또또삼촌의 잡동사니. 2025.8.3. 접속,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bt3840&logNo=221783976444&referrerCode=0&searchKeyword=%ED%83%9C%EA%B7%B9>). 현재 전쟁기념관에 소장 중인 이근석 수여 훈장은 실물 확인 결과 재현품으로 추정된다.

표 7 1951년 8월 충무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구분	상세 제원
표면	태양형 5대지 경 41mm 홍색투명칠보(지금)
	귀갑편(龜甲片) 15편 담청색 칠보 경 34mm
	화변 5편 경 22mm 양각
	파문대(波紋帶) 대경 19mm 소경 11mm 감색칠보
	내(內) 귀선(龜船) 경 11mm 청색칠보
이면	대한민국충무무공훈장 제 호
수	수 수청색(水靑色) 세로 46mm 가로 36mm 백4조 각 1mm 필요한 때에는 중앙에 금성 또는 은성 1.8cm

도식 및 부분별 명칭(저자 해석), 실물

	①	5대지(홍색 투명칠보)
	②	귀갑편 15편 담청색 칠보
	③	화변 5편 양각
	④	파문대(감색칠보)
	⑤	내 귀선(청색칠보)
	⑥	수 : 수청색, 백4조, 금성 또는 은성(필요 시)
		
		
수여자 불명 ('52.7., 미국 촬영)	이준식 충무훈장 ('50.12.30., 현충원)	

이 훈장은 오각형 대지(①), 소지의 모양(②), 화변(③), 수·약장의 백4조 등에서 삼등무공훈장의 특징이 잔존하고 있다. 을지훈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주요한 변화는 중앙 고유 도안(귀선, 거북선)의 도입이며, 여기에 파문대 도안과 소지의 명칭 추가(귀갑편)를 통하여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딴 충무훈장에 어울리는 형식을 갖췄다. 정장의 지름이 작아지고(6cm→4cm), 4개 루비의 색은 녹색(청색)에서 홍색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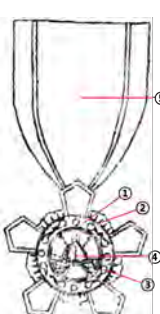
4) 화랑무공훈장

기존의 사등훈장에 해당하는 이 훈장의 제식 및 실물은 <표 8>과 같다.

표 8 1951년 8월 화랑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구분	상세 제원
표면	태양형 지금 경 40mm 홍색칠보
	무궁화 화변 5편 양각
	곡옥대(曲玉帶) 대경 21mm 소경 14mm 금다색투명칠보
	투구(鬪具) 경 14mm 담청색칠보 지금 시전(失箭) 2本(本) 투구모(鬪具帽) 1개
	홍옥 4개
이면	대한민국화랑무공훈장 제 호
수	수 황등색(黃橙色) 세로 46mm 가로 36mm 백2조 각 1mm 필요한 때에는 중앙에 금성 또는 은성 1.8cm.

도식 및 부분별 명칭(저자 해석), 실물

	①	지금 홍색칠보
	②	무궁화 화변 5편 양각
	③	곡옥대(금다색투명칠보)
	④	투구(담청색칠보), 시전 2본 투구모
	⑤	홍옥 4개
	⑥	수 : 황등색, 백2조, 금성 또는 은성(필요 시)
		
김정길 화랑훈장 ('54.7.7., 경찰박물관)		

이 훈장은 오각형 대지(①), 중앙 투구(④)와 주위 도안(③) 등에서 사등무공훈장과 유사하다. 차이점으로는 크기가 축소된 점(6cm→4cm), 대지 위로 돌출된 원형 화변에서 대지 사이의 5개 화변으로 변경된 점, 화변(무궁화)과 중앙 주위 도안(곡옥대)에 전통적 명칭을 추가한 점, 곡옥대 부분 바탕색(백색→적색)과 수·약장의 색(홍색→황등색)이 변화한 점 등이다. 제식에서 홍옥으로 기술된 부분은 실물에서 백색으로 확인된다.

3. 1963년 12월 제식과 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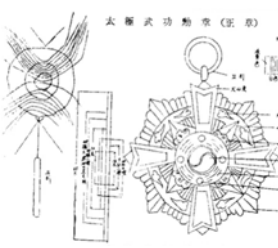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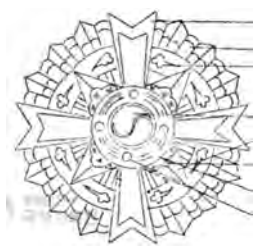
1963년 12월 제정된 「상훈법」에 제식을 비롯한 모든 훈장 관련 내용이 통합되었다. 무공훈장의 경우 1951년 8월 제식을 기본 바탕으로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기존 소수 정장만 있던 것에서 훈장 등급에 따라 대수(어깨걸이형), 중수(목걸이형), 소수(가슴에 패용)로 나뉘지게 된 점, 금성-은성-무성 구분이 폐지된 점, 5등급 인현무공훈장이 추가된 점 등이 주요 변화이

다. 약장의 경우 5개 등급 훈장이 모두 1951년 8월 제식과 동일하다.

1) 태극무공훈장

〈표 9〉는 1963년 12월 태극훈장 제식의 상세 제원, 도식 및 실물이다.

표 9 1963년 12월 태극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상세 제원(1951년 제식과 크기 비교 비율)		
구분	정장	부장
태양형	경 58mm(▲16.0%)	경 75mm(▲50.0%)
서운 환대	대경 48mm 소경 37mm (▲29.7% / ▲27.6%)	대경 51mm 소경 40mm (▲37.8% / ▲37.9%)
4돌지주	경 48mm(▲29.7%)	경 51mm(▲37.8%)
무궁화 화변	경 30mm	경 33mm
홍옥	경 2.5mm	경 2.5mm
괘	대경 24mm 소경 15mm (▲20.0% / ▲25.0%)	대경 27mm 소경 18mm (▲35.0% / ▲50%)
태극	지름 14mm(▲16.7%)	경 17mm(▲41.7%)
장판	(장판 없음)	(장판 없음)
고리	길이 50mm 폭 5mm	(고리 없음)
수	길이 1,900mm 폭 85mm, 담청색 69mm 백색8열 각 2mm, 결수(結綬) 경 85mm	(수 없음)
도식/실물		
		
정장 및 수		부장
		
강재구 훈장 (‘66.5.12., 육군박물관)		강문봉 훈장(뒷면) (‘53년 또는 ‘54년, 전쟁기념관)

이 제식의 태극훈장의 모양은 1951년 8월 제식과 거의 동일하며, 가장 큰 차이점은 소수에서 대수로 변경된 정장의 수 형태와 부장의 추가이다. 〈표 9〉의 크기 변화 표시는 1951년 8월 제식의 소수 훈장 크기와 비교한 결과인데, 지름을 기준으로 이 시기 제식의 정장이 16% 커졌고, 특히 부장은 1.5배나 크기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제식상 도식과 실물을 비교해 보면 실물 부장이 소지가 2겹으로 겹쳐 있는 것에 비해 도식에서는 이 점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고 있다. 예시로 든 강재구 훈장 부장의 경우 색상이 원래 정장처럼 금색이어야 하나, 세월이 지나 바랜 것으로 보인다. 동 훈장의 대수 색 또한 바랜 것인데, 강문봉 훈장 대수 뒷면이 원래의 색으로 보이며, 대수 앞면의 색은 강재구 훈장의 것과 같다. 이 제식의 태극무공훈장 실물 사례는 이 외에 부장만 2건이 확인된다.¹²

2) 을지무공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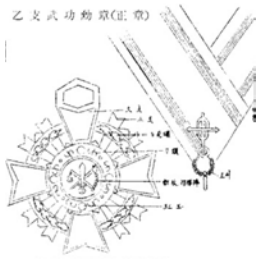
〈표 10〉은 1963년 12월 을지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이다.

훈장의 모양은 1951년 8월 제식과 거의 동일하다. 소수에서 중수로의 변경, 부장의 추가, 무궁화 화변 명칭의 삭제 등이 차이점이다. 특히 중수와 정장을 연결하는, 제식에 ‘월계엽 활판 및 쌍활’로 기재된 연결 고리(실물 사진 좌측)가 특징적인데, 쌍활은 화살 2개가 십자형태로 겹쳐진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전 제식에 비하여 크기는 지름을 기준으로 정장은 24.4%, 부장은 55.6% 커졌으며, 태극훈장과 마찬가지로 정장에 비해 부장을 상당히 크게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도식과 실물을 비교하면 역시 실물 부장의 소지 구성이 2겹인 점에서 도식에서의 표현과 차이가 있다.

12 개인소장 1건(수여자 불명, 474호, “1960년대 태극 무공 훈장 부장”. Cool Breeze. 2025.8.31. 접속, <http://blog.naver.com/anaheim3/223587473608>), 전쟁기념관 소장 1건(수여자 불명, 508호, 후면에 ‘진열용’ 문구가 별도 각인).

표 10 1963년 12월 을지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상세제원(1951년 제식과 크기 비교 비율)		
구분	정장	부장
태양형	대경 56mm 소경 40mm (▲24.4% / ▼4.8%)	대경 70mm 소경 43mm (▲55.6% / ▲2.4%)
월계환	대경 45mm 소경 35mm (▲32.4% / ▲34.6%)	대경 48mm 소경 38mm (▲41.2% / ▲46.2%)
무궁화 화변	(화변 내용 없음)	(화변 내용 없음)
홍옥	경 2.5mm	경 2.5mm
도새	대경 24mm 소경 15mm (▲26.3% / ▲36.4%)	대경 27mm 소경 18mm (▲42.1% / ▲63.6%)
검·장· 지휘봉	경 14mm	경 17mm
고리	장 43mm 폭 15mm, 월계엽 활판과 쌍할	(고리 없음)
수	장 600mm 폭 15mm 갈색 30mm 백색6열 각 1mm 견직	(수 없음)

도식/실물	
	
정장 및 수	부장
	
오상욱 훈장('66.11.26., 현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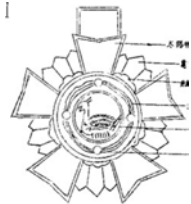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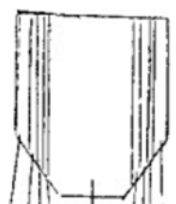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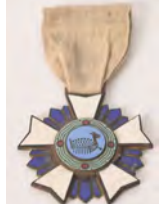
3) 충무무공훈장

〈표 11〉은 1963년 12월 충무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이다.

수 형태의 변화가 없는 을지훈장은 1951년 8월 제식과 사실상 동일하며 26.8% 가량 크기가 커진 것이 차이이다. 또한 이전에 제식상 홍색으로 기술(실물은 백색)되었던 대지의 색이 백색으로 정정되었다. 1968년 7월에 수훈한 사실이 확인되는 윤태곤 충무훈장은 수훈 시기가 1967년 2월 제식으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1963년 혹은 1951년 제식을 따르고 있는 특이한 사례로 정장 크기가 5cm인 점으로 보아 1963년 제식으로

표 11 1963년 12월 충무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구분	상세제원(1951년 제식과 크기 비교 비율)
태양형	경 52mm(▲26.8%)
귀갑편	경 42mm(▲23.5%)
화변	경 26mm(▲18.2%)
파문대	대경 22mm 소경 13mm(▲15.8% / ▲18.2%)
홍옥	경 2.5mm
귀선	경 12mm(▲9.1%)
수	세로 46mm 가로 36mm 수청색 32mm, 백색 4열 각 1mm

도식/실물		
		
정장	수	윤태곤 훈장 (‘68.7.20., 현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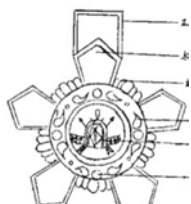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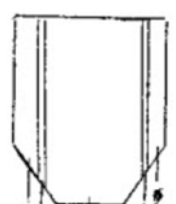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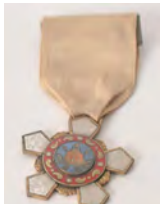
판단된다. 다만 귀선 그림의 방향이 도식의 좌측이 아닌 우측을 향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훈장 제식이 변경되는 과도기에 원래 제식과 다소 상이하게 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4) 화랑무공훈장

〈표 12〉는 1963년 12월 화랑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이다.

표 12 1963년 12월 화랑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구분	상세제원(1951년 제식과 크기 비교 비율)
태양형	경 50mm(▲25.0%)
무궁화 화변	경 25mm
곡옥대	대경 20mm 소경 12mm(▼4.8% / ▼14.3%)
투구	경 11mm(▼21.4%)
홍옥/백옥	백옥 경 2.5mm
수	세로 46mm 가로 36mm 황등색 34mm 백색2열 각 1mm 견직

도식		
		
정장	수	은명수 훈장 (1960년대, 현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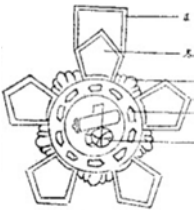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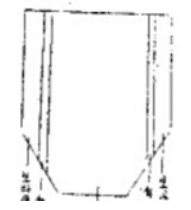
충무훈장과 마찬가지로 크기를 제외하고 1951년 8월 제식과 거의 차이가 없다. 예시의 은명수 훈장의 지름은 40mm로 이 제식의 상세 제원과 같이 지름이 50mm 내외인 현전 실물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지를 기준으로 한 지름은 1951년 제식보다 25% 정도 커졌으나 안쪽 도안들의 비율적으로 작아졌다.

5) 인헌무공훈장

〈표 13〉은 1963년 12월 인헌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이다.

표 13 1963년 인헌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구분	상세 제원
정장	태양형 대5지 지름 45mm 백색칠보 동
	무궁화화변 양각 5면 경 24mm 금색 동
	환대(丸帶) 대경 19mm 소경 11mm 청색칠보 동
	포(砲) 경 10mm 지 홍색칠보 포(砲) 금색 동
수	세로 46mm 가로 36mm 보라색칠보 백색2열 각 1mm 견직
약장	총 11mm 횡 36mm 보라색 34mm 백색2열 각 1mm 견직
	태극 경 8mm 상홍하청색(上紅下靑色) 견직

도식/실물		
		
정장	수	수여자 불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등급 인헌무공훈장은 1963년 12월 제식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기본적인 훈장의 형태는 오각형, 화변의 장식 등에서 화랑훈장과 유사하며, 지름은 5mm 작다. 중앙 도안은 적색 바탕에 금선으로 대포를 표현하고 포탄으로 보이는 장식(환대丸帶)을 둘러쌌다.

4. 1967년 2월 제식과 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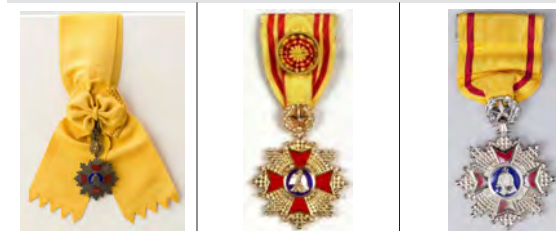
1967년 「상훈법시행령」(1967.2.28. 제정, 1967.4.17. 시행)의 제정에 따라 기존 「상훈법」에 포함되어 있던 무

공훈장 등 각종 훈장의 명칭(별표 1)과 제식(별표 2)이 시행령에 기술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 1950년 무공훈장 제정 시부터 등급별로 차이를 두었던 정장 메달의 중앙 도안과 그 외 제식이 모두 통일된 큰 변화가 있었다. 약장 외 금장의 제식 또한 추가되었다. 1967년 2월 무공훈장 제식은 〈표 14〉와 같다.

표 14 1967년 2월 무공훈장 제식 및 실물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정장	투구(1점) 18mm 금색부조 은	좌동, 16mm	좌동, 15mm	좌동, 13mm	좌동, 12mm
	홍옥판(1점) 19mm 금색청색칠보 은	좌동, 17mm	좌동, 16mm	좌동, 15mm	좌동, 13mm, 은색청색 칠보 은
	홍대지(4지) 48mm 금색홍색칠보 은	좌동, 45mm	좌동, 40mm	좌동, 35mm	좌동, 33mm 은색청색 칠보 은
	서운(1환) 26mm 금색부조 은	좌동, 25mm	좌동, 22mm	좌동, 21mm	18mm 은색부조 은
	서광지(瑞光支) 56지 60mm 금색부조 은	좌동, 55mm	좌동, 50mm	좌동, 45mm	좌동, 41mm 은색부조 은
	월계염원(24엽) 22×22mm 금색부조 은	좌동, 20×20mm	좌동, 18×18mm	좌동, 16×16mm	좌동, 14×14mm 은색부조 은
수	대성(大星) 1좌(座) 15mm 금색부조 은	좌동, 16mm	좌동, 14mm	좌동, 12mm	좌동, 11mm 은색부조 은
	폭 80mm 담주황(淡朱黃) (황1-주7-황 22-주7-황1)	폭 38mm 담주황 (황4-주5-황 20-주5-황4)	좌동 (황4-주5-황 20-주5-황4)	좌동, 경 20mm, 2mm 적색선4본입 (赤色線4本入)	좌동 (황5-주2-황 24-주2-황5)
부장	장 1,700mm 담주황	장 600mm 담주황	(좌동)	장 11mm 담주황	(좌동)
	투구(1점) 21mm 금색부조 은	(좌동)	(부장 없음)		
	홍옥판(1점) 23mm 금색청색칠보 은	(좌동)	(부장 없음)		
	홍대지(4지) 57mm 금색홍색칠보 은	(좌동)	(부장 없음)		
	운대(1환) 32mm 금색부조 은	(좌동)	(부장 없음)		
약장	서광지(56지) 71mm 금색부조 은	(좌동)	(부장 없음)		
	38×10mm 정장수와 같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금장	직경 1.7cm의 은 및 견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실물



최규식 태극훈장
(‘68.1.25., 경찰박물관)

류근창 화랑훈장
(‘52.1.10., 충남문화원)

인헌훈장
(민속박물관)

태극 이하 5개 등급의 훈장의 기본 모양은 모두 동일하며, 훈장의 크기, 부장의 유무, 수의 형태 차이를 통해 구분된다. 정장 중앙에 전통 투구가 도안돼 있고 그 주위로 원형의 남색 바탕 홍옥판이 있다. 또한 홍옥판을 둘러싸는 운대가 있는데, 총 12개의 구름이 도안되었다. 홍옥판을 중심으로 하여 운대 사이로 4개의 홍대지(紅大支)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 이전 제식의 태극무공훈장 대지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대지 주위로 다시 56개의 소지(小支)가 있는데, 서광지(瑞光支)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 정장은 24엽의 월계엽환의 둘러싸인 대성과 연결되며, 이를 다시 각 훈장 등급에 해당하는 수에 매달았다. 화랑훈장까지는 색상이 금색으로 모두 동일하며, 인헌훈장만이 은색이다.

이 제식에서 각 등급의 훈장을 구별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수의 형태와 훈장의 크기이다. 그 중에서도 수의 형태와 색상이 각 등급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지표가 된다. 태극훈장 정장만이 대수를 가지고 수의 색은 담주황 단색이며, 여기에 부장이 추가된다. 을지와 충무훈장은 중수 정장으로 수의 색상이 황-주-황-주-황의 순서라는 점이 동일한데, 중수의 황·주 2개 색 중 충무 훈장에서 가장자리 황색의 면적이 넓은 점에 차이가 있다. 을지훈장은 별도의 부장을 가진다. 화랑과 인헌은 소수 훈장으로, 화랑은 소수 중앙에 직경 20mm의 원형 모양이 부착된다. 인헌은 소수에 원형 모양이 없고 정장의 색이 유일하게 은색이다. 각 훈장 뒷면에는 등급별 훈장의 명칭이 각자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1969년 12월 19일 「상훈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장의 형태를 원형(직경 1.7cm)에서 직사각형 형태(12×8mm)로 변경하였다.¹³

1971년 6월 30일 동시행령 개정으로 훈장 등급별

수의 색을 변경하였는데, 이 제식의 실물은 <그림 3>과 같다.¹⁴



그림 3 1971년 제식 무공훈장 실물 A: 강문봉 태극훈장(54.5.1., 전쟁기념관), B: 류재문 화랑훈장(70.10.28., 현충원).

이 제식에서 태극훈장의 대수는 이전의 담주황 단색에서 적·황 2개 색으로 변경되었다. 좌측부터 가장 자리에 적색이 가늘게, 황색이 다소 굵게, 중앙에 적색이 넓게 들어가고 우측은 좌측 패턴과 같다. 을지와 충무훈장의 중수는 1967년 제식의 경우 넓이 차이가 일부 있는 동일한 색 및 패턴을 가졌는데, 1971년 개정으로 을지와 충무 모두 첫 가장자리에 가는 적색, 중앙에 굵은 적색을 공통으로 두고, 을지는 좌·우측 황색선 각 4개가, 충무는 각 3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화랑훈장 소수는 좌·우측 황색선이 각 2개, 인헌훈장은 1개를 두어 구분하였는데, 화랑훈장 소수 중앙의 직경 20mm 원형은 유지되었다. 1967년 및 1971년 제식의 수 색상은 황색과 적색의 조합으로 구성된 점은 동일하지만, 1967년 제식은 황색이, 1971년 제식은 적색이 가장자리에 먼저 보인다는 점이 공통된 차이점이다.

5. 1973년 11월·1984년 1월 제식과 실물

1973년 11월 1일 「상훈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공훈장 제식이 <표 15>와 같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전과 같이 모든 등급 훈장의 중앙 도안과 기본 모양이 동

13 화랑무공훈장의 경우 수의 색상 표기를 황3-주2-황2-주2-황20-주2-황2-주2-황3로 변경하였는데, 실제 훈장에서는 바뀐 점이 없다.

14 강문봉 수여 태극무공훈장은 기록상 훈장 수여일이 1954년이지만, 1967년 2월 제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시기에 재발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류재문 수여 화랑훈장은 수여일이 1970년임에도 1971년 제식을 따르고 있다.

표 15 1973년 11월 무궁훈장 제식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현
정장	투구(1점) 18×14mm 금색 은	좌동, 16×14mm	좌동, 14×11mm	좌동, 14×11mm	좌동, 14×11mm
	홍옥판(1점) 19mm 금색 은	좌동, 15mm	좌동, 16mm	좌동, 16mm	좌동, 16mm
	점새(1점) 23mm 금색 은	좌동, 21mm	좌동, 19mm	좌동, 19mm	좌동, 15mm
	소지(180지) 60mm 금색 은	좌동, 55mm	좌동, 50mm	좌동, 50mm	소지(96지) 50mm
	대성(1좌) 16mm 금색 은	좌동, 15mm	좌동, 13mm	좌동, 13mm	좌동, 13mm
	월계엽환(24엽) 22×22mm 금색 은	(표기 없음)	월계엽환 (24엽) 17× 17mm	좌동, 17×17mm	좌동, 17×17mm
	중량 42.7g	중량 37.4g	중량 26.7g	중량 26.7g	중량 26.7g
수	폭 80mm 적색	폭 38mm 적, 백색 (패턴 색별 길이 기재 오류 : 적색 바탕에 백색선 4개 추정)	폭 38mm 적, 백색 (패턴 색별 길이 기재 오류 : 적색 바탕에 백색선 3개 추정)	폭 38mm 적, 백색 적2, 백1.5, 적2, 백1.5, 적24, 백1.5, 적2, 백1.5, 적2	폭 38mm 적, 백색 적2, 백2, 적30, 백2, 적2
	장 1,700mm 적색 견직	장 600mm 적, 백색	장 600mm 적, 백색	장 100mm 적, 백색	장 100mm 적, 백색
부장	투구(1점) 21×16mm 금색 은	좌동, 18×14mm	(부장 없음)		
	홍옥판(1점) 22mm 금색 은	좌동, 19mm	(부장 없음)		
	점새(1점) 27mm 금색 은	좌동, 23mm	(부장 없음)		
	소지(180지) 70mm 금색 은	좌동, 60mm	(부장 없음)		
	중량 50.7g	중량 42.7g			
약장	38×10mm, 정장수와 같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금장	12×8mm 금색·수색 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일하지만 소지 수의 증가 등 1967년 제식의 모양과는 차이가 있다.

중앙에 투구 도안과 홍옥판을 배치한 것, 태극-대수, 을지·충무-중수, 화랑·인현-소수의 수 구분, 수와 정장 연결 부위의 대성과 월계엽환을 둔 점 등은 유지하였다. 이전 제식과 가장 큰 차이는 줄곧 유지되어 오던 대지를 삭제하고 180개의 이르는 소지만으로 정장을 표현한 것이다. 정장과 부장의 크기는 태극을 가장 크게 하고 을지를 이보다 다소 작게 하였으며 충무

이하의 모두 동일한 크기로 제작하였다. 정장의 색상은 이전 제식에서 인현 훈장을 은색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모두 금색으로 통일하였다. 수의 색상은 태극은 적색으로만 구성되고 을지 이하에서는 바탕색을 적색으로 하되 백색선을 8개(좌4, 우4)~2개(좌1, 우1)로 하여 차이를 두었다.

1974년 10월 23일 「상훈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을지 이하 훈장 수의 색상에 대하여 모두 다른 바탕색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을지는 주황색, 충무는 옅은 오렌지색, 화랑은 짙은 적색, 인현은 하늘색을 수의 바탕색상으로 하였으며, 그러한 바탕색에 1.5mm의 백색선을 각각 8개(좌4, 우4), 6개(좌3, 우3), 4개(좌2, 우2), 2개(좌1, 우1)를 두어 구분하였다. 또한 약장은 수여 횟수에 따라 1회 수여한 경우 기본 약장을, 2회 수여한 경우 1개의 무궁화를 중앙 투구 도안 위에 넣고, 3회 수여한 경우 투구 위가 아닌 좌우 양쪽에 2개의 무궁화를 추가하였다.

1984년 1월 23일 「상훈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폭의 제식 변경이 있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크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으며,¹⁵ 소지 숫자를 태극, 을지훈장은 180개에서 184개로, 충무 및 화랑훈장은 180개에서 96개로 변경하고, 인현훈장은 96개로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월계엽환의 숫자를 24개에 26개로 늘렸다. 그 외 태극훈장의 대수 길이(1,700→1,800mm)와 무게 등에서 차이가 있다. 수의 색상은 1974년 10월 개정된 내용과 동일하다. 현전 실물의 구분에 있어서 이러한 1984년의 제식 변화를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쉽지 않으며, 훈장의 크기와 수훈 시기 등을 근거로 구별해야 한다. 1973년 11월 이후 제식 무궁훈장의 현전 실물의 모습은 〈그림 4〉와 같으며, 1984년 제식인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았다(도식은 1973년 제식). 수여자가 있는 태극, 을지, 화랑훈장은 원래의 수여 시기를 고려할 때 모두 재발급된 훈장이다.¹⁶

15 태극, 을지 훈장의 소지 크기 기준(정장의 직경에 해당) 각각 10mm, 5mm 증대되었으며, 중앙의 투구, 홍옥판, 점새, 대성·월계엽환 등은 크기를 조금 줄였다.

16 민속박물관 소장 충무훈장은 중앙 부분이 탈락되었으며, 원래의 측면 촬영 이미지를 저자가 정면 방향으로 수정하여 비율상 다소의 왜곡이 있다.



그림 4 1973년 11월 이후 무공훈장 제식의 도식과 실물 A: 태극훈장 도식('73.11.), B: 김만술 태극훈장('54.7.6., 현충원), C: 연제근 을지훈장('50.12.30., 현충원), D: 충무훈장(민속박물관), E: 연제근 화랑훈장('50.12.30., 현충원), F: 인헌훈장(민속박물관).

Ⅲ. 무공훈장 제식과 실물 종합 고찰

1. 시기별 무공훈장 제식 변화의 특징

이 절에서는 제2장에서 분석한 시기별 무공훈장 제식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1950년 제식은 대한민국 무공훈장 최초의 훈장 제식이다. 일등~사등으로 훈장 등급을 나누었고, 중앙 훈장 도안은 태극(1·2등급), 투구(3·4등급) 2가지로 구분하였다. 약 1년 후의 1951년 제식은 훈장의 등급 명칭을 태극, 을지, 충무, 화랑의 우리 고유 명칭으로 수정하였다.¹⁷ 디자인 측면에서는 1950년 훈장의 것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특히 중앙 도안을 전통성이

강조된 태극(1등급), 검·지팡이·지휘봉(2등급), 거북선(3등급), 투구(4등급)로 채택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¹⁸ 여기에 각 등급 훈장의 소수에 금성-은성-무성을 달아 구분함으로써 실제로는 4개의 상위 등급과 상위 등급별 3개의 하위 등급을 합쳐 총 12개 등급으로 운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10년 뒤 「상훈법」 제정으로 변경된 1963년 제식에서는 5등급의 인헌훈장을 추가하고 금성-은성-무성의 구분을 삭제하였다. 1951년 훈장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태극훈장에는 대수를, 을지훈장에는 중수를, 충무훈장 이하에는 기존과 같이 소수를 다는 등 수의 형태를 세분화하였다.¹⁹ 충무, 화랑훈장의 경우 1951년 제식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상훈법시행령」 제정과 함께 변경된 1967년 훈장 제식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5개 등급의 훈장 디자인과 중앙 도안(투구)을 통일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등급별 훈장 디자인의 고유한 특징이 다소 퇴색되었으며, 훈장 등급의 구분은 수의 형태(태극-대수, 을지·충무-중수, 화랑·인헌-소수)와 색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²⁰ 1971년에 수 색상의 일부 변화가 있었다. 1973년 훈장 제식에서는 중앙 도안을 기존과 동일하게 전통 투구로 하면서도 대지(大支)를 삭제하고 소지(小支)의 수를 대폭 늘리는 등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으며, 등급별 수·약장·금장의 색상을 변경하였다. 1984년에도 소폭의 디자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

17 이에 앞선 1949년 9월 29일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총무처 상훈국에서 공모한 훈장도안모집에 을지, 충무, 화랑의 훈장 명칭이 이미 보이고 있다(각주 5 참조). 당시 을지훈장은 육군, 충무훈장은 해군, 화랑훈장은 유공한 무관에게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수여토록 정하고 있었다.

18 1951년 8월 19일의 「무공훈장령 개정의 건」의 개정 이유에서 “무공훈장 1·2·3·4등급 사종을 각기 고유한 훈장명칭으로 개정하고 훈장증은 국문으로만 기입하라는 대통령 각하의 분부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어 우리 고유의 전통성을 강조하려 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훈장 등급별 도안 디자인의 수정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 1963년 12월 14일 「상훈법」의 제정 이유에 각 훈장령 간의 조문이 중복되고 제식 균형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때 무공훈장을 포함한 모든 훈장 제식을 전반적으로 통일하였다.

20 이와 같은 훈장 제식의 약식화·통일화 현상은 그 제작에 있어서의 비용 문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12월 보도기사에서 이석제 총무처 장관은 새로운 상훈법 시행에 따라 옛 훈장을 새 훈장으로 교환해 줘야 하는데, 국회에서의 예산 삭감과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훈법 시행 이전 발급된 각종의 훈장은 총 29만개로 이를 모두 교환하려면 20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종전의 훈장은 도금이 나빠 녹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녹슬지 않는 훈장의 제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여된 훈장은 근 30만개”, 1967.12.8. 조선일보, 3면).

표 16 각 제식별, 등급별 훈장 디자인의 비교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디자인 A	1950년 *소수					—
	1951년 *소수					—
	1963년 *태극-대수, 을지-중수, 충무 이하 소수					
디자인 B	1967년 *태극-대수, 을지· 충무-중수, 화랑· 인헌-소수		(좌동)			
	1973년 *상등		(좌동)			

때 정해진 안이 현재의 훈장 제식이다.

제식별 훈장 디자인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표 16>과 같이 각 제식별, 등급별 훈장의 정장을 비교하였다.

무공훈장의 디자인은 1963년 제식까지의 디자인A와 1967년 제식 이후의 디자인B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디자인A는 훈장 등급별 디자인을 각기 다르게 하면서도 각 등급의 기본 디자인은 계승되고 있다. 1951년 제식은 최초의 1950년 제식을 계승 발전시켜 무공훈장 디자인을 정립하였다. 1951년 제식은 1950년 제식과 비교할 때 태극, 을지훈장은 4개의 대지를, 충무, 화랑훈장은 5개의 대지를 계승하였는데, 대지의 색은 태극과 을지훈장의 경우 적색으로 변화시켰다. 태극훈장은 대지와 4돌지주(尖支柱), 태극무늬를 그대로 채택하면서

도 홍옥의 수를 8개에서 4개로 줄이고, 태극 주위의 사슬을 꽤로 바꿈으로써 태극기 문양을 완성하였다. 또한 중간 원의 월계수를 전통적 구름으로 바꾸었으며, 전체 크기를 줄여 균형감을 높이고 소지의 크기 변화를 주어 역동적 느낌을 부각하였다. 을지훈장은 대지와 8개 무궁화 잎을 유지하면서 중앙 도안을 태극에서 전통적 지휘의 상징인 검·지팡이·지휘봉으로 바꾸었고, 소지 모양과 바깥쪽 월계수 잎의 모양에 변화를 주었다. 충무훈장 역시 중앙도안을 귀선(거북선)으로 바꾸고 그 주위로 파도 문양을 나타내는 한편, 15개 소지의 명칭을 귀갑편이라 하여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명칭상의 연결성을 강화하였다. 화랑훈장은 1950년 훈장 제식과 상당 부분 유사한데, 크기와 색상, 그리고 약간의 디자인 변화를 주었다. 1963년 제식은 1951년의 기본 디자인

인을 계승하면서 부분적 변화만을 주었고 새롭게 추가된 5등급 인헌훈장은 화랑훈장 제식에서 중앙 도안 정도를 대포로 바꾸었을 뿐이다.²¹

디자인B는 모든 등급의 훈장 디자인이 통일되었고, 통일된 디자인도 비교적 단순하다. 1967년 제식은 1963년 제식과 비교할 때 4개의 대지 형태 정도만이 잔존하였으며 디자인에 전반적 변화를 주고 모든 등급에 적용하였다. 잔존한 대지는 을지훈장의 것과 유사하며, 서광지(瑞光支)라고 지칭된 소지의 형태가 크기 차이가 있는 작은 방형이 여러개 이어져 이뤄진 점이 특징적이다. 1973년 제식에서는 이것이 곧은 직선 형태로 바뀌었으며, 줄곧 이어져 온 대지가 없어졌다. 중앙 투구 도안 바탕색이 파란 색에서 붉은 색으로 변화한 것도 차이점인데, 기존 적색 대지가 사라져 적-청색의 패턴을 맞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무공훈장 등의 패용 방식

1955년 11월 8일 「훈장패용규정」(대통령령 1105호)이 제정되어 모든 훈장에 대한 패용 방법을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복에는 정장, 평복과 전시 작업복에는 약장을 패용토록 하였고(제2조), 정장과 약장의 동시 패용을 금하였다(제3조). 패용 순위는 구분에 따라 훈장, 포장, 기장순으로(제4조), 훈장 종류에 따라 무궁화대훈장, 건국공로훈장, 소성훈장(후의 근정훈장), 무공훈장, 문화훈장의 순으로 하고 기타 훈장은 수여된 순서대로, 외국 훈장은 우리 훈장 다음에 패용토록 하였다.(제5조). 훈장, 수장²², 약장의 개수별 패용위치 또한 정하였는데, 훈장과 약장은 좌측 가슴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패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4개 이상은 2줄이상으로 구성하되 윗줄의 순서가 우선이었다. 1963년 12월의

「상훈법」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대수, 중수 훈장의 패용 방식 등을 규정하였다. 정장 외 부장은 좌측 가슴 정장 아래에 패용하며, 필요 시 연회복 등에 2분의 1 크기의 축소훈장도 패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는 무공훈장 등을 패용한 6·25전쟁 참전 군인의 사진이다.



그림 5 무공훈장 등을 패용한 6·25전쟁 참전 군인 A: 김홍일 장군, B: 유재홍 장군, C: 김종오 장군 및 예복(현충원 소장), D: 이명수 상사.

상단 좌측은 김홍일이 1950년 10월 제식의 일등무공훈장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수여 받을 당시 사진으로 좌측 가슴²³에 소수 훈장을 패용하였다. 우측 사진의 김홍일은 중수로 된 건국공로훈장 3등급 단장(독립장)을 목에 걸고 좌측 옷깃에 6개의 축소훈장을, 좌측 늑골 부위에 일등무공훈장을 패용하였는데, 소수는 사라진 모습이다. 연회복 안쪽으로 1967년 2월 제식의 태극무공훈장 단색 대수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패용 훈장 중 일등(태극)무공훈장이 가장 상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훈장 정장은 기수여한 1950년 제식을 유지하고 대수만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재홍은

21 인헌훈장은 앞 등급 훈장에서 전통 도안을 채택한 것과 다르게 근대식 대포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강감찬 장군의 시호인 인헌이라는 전통적 명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22 규정에 綬章이라고 표기되었는데, 우측 가슴에 약장 형태로 패용하는 부대표창(그림 5)의 현충원 소장 김종오 장군 예복 우측 가슴 약장 형태를 참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확실치 않다.

23 여기에서 설명하는 패용의 방향은 의복 착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동일하다.

연회복 안쪽으로 1971년 제식 황·적 패턴의 태극무공훈장 대수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좌측 가슴에 1951년 제식의 소수 태극훈장, 그 아래에 수가 없는 1950년 일등무공훈장을 패용하였다. 유재홍은 1953년 4월에 은성태극무공훈장 1회만을 수훈하였으므로 이후 제식으로 발급된 훈장 1개를 추가 패용한 것이다. 김종오는 1963년 제식 태극무공훈장 대수 및 정장, 부장을 패용하고 목에는 1963년 제식의 을지무공훈장, 필리핀 Legion of Honor 훈장을 걸었으며, 좌측 가슴에 1951년 제식 태극무공훈장, 을지·충무훈장, 미국 수훈십자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 군공훈장(Legion of Merit), 동성훈장(Bronze Star), 대수 아래 우측으로 다수의 외국훈장 부장을 패용하였다. 현충원 소장의 김종오 예복은 좌측 사진에서 착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좌측 가슴의 소수 정장이 축소훈장으로 교체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상사는 1973년 이후 제식 태극무공훈장의 적색 대수, 정장 및 부장, 다수의 무공훈장 및 기장, 공로장 등을 패용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훈장 패용 방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면서도 중복 패용, 부장의 위치, 1줄당 소수 정장의 수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크고 작은 차이가 엿보인다.

3. 태극무공훈장 수여 현황 및 훈장번호 분석

무공훈장 중 1등급 태극무공훈장의 경우 「태극무공훈장」 1~3권(이하 훈장부)의 내용을 분석하면, 실제 수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모두 387건, 수여시기는 1950년~1987년이다(삭선 표시, 미수여 등 제외). 최초 수여일자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1950년 9월 29

일이며, 1959년까지 전체의 76.0%, 1961년까지 91.5%가 수여되었다. 수여 비율이 10%가 넘는 해는 1954년(16.0%), 1953년(15.3%), 1961년(11.9%), 1952년(10.6%)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36건(61.0%), 대한민국이 101건(26.1%)으로 전체의 87.1%를 차지하며 그 외 중화민국 11건(2.8%), 비올빈(필리핀) 8건(2.1%), 태국 7건(1.8%)이고 나머지 국가는 1.0% 미만이다. 개인이 아닌 각국의 전사자·참전자 전체를 대표하여 무명용사²⁴에게 수여된 것은 16건²⁵이다.

소수 별 표식의 구분에 따른 세부 등급별로는 금성 52건, 은성 69건, 무성 225건이며, 일등무공훈장으로 표기된 것은 12건이다. 태극무공훈장은 장성급에 집중적으로 수여되었으며, 수여 사례가 가장 많은 미국 장성의 경우 대장급은 금성, 중장급은 은성, 그 이하는 무성 태극무공훈장이 통상적으로 수여되었다(나종남 2021:52~53). 한국군의 경우 금성태극무공훈장은 총 5차례 수여되었는데 장성급으로는 백선엽, 손원일, 원용덕(이상 중장)에게, 비장성급으로는 베티고지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워 미국 수훈십자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받기도 한 김만술 대위와 국군무명용사에게 수여되었다.

이 시기 무공훈장의 등급별 수여는 「무공훈장수여기준에 관한 건」(總人 제1324호)을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총무처 1988:125~127). 이 기준안은 1951년 10월 11일 대통령 관저의 지시를 받아 국무총리 명의로 국방부장관에게 송부된 것이다. 그 취지로 “무공훈장의 수여기준은 각 개인의 수공(樹功) 정도에 치중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수공자의 계급에 의한 원칙적 기준도 필요할 것”을 밝힌 후 계급별 수여되는 훈장의 종류를 제시하였다.²⁶ 약 2

24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 국가의 참전 및 전사자 전체를 대표하는 무명용사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엄태웅 2025:226을 참조.

25 무명용사가 없는 캐나다와 에티오피아는 수여 의결 후 취소.

26 이에 앞서 1951년 6월 18일 국방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등무공훈장 수여 상선에 관한 건」 내의 ‘사유서’에는 미국과 일본의 훈장제도를 참작하여 한국형 무공훈장제도를 설계하려 했던 국방부의 입장이 투영되어 있는데, 그 골자는 훈장의 서훈 등급 결정 시 전공과 더불어 계급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었다(나종남 2021:42~43). 이 보고서에는 당시 1등무공훈장 대상자로 상선 중이던 18명 모두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개전 이래 국군 전투 참전 병력 및 인명손실수, 미국 및 일본의 훈장 제도와 수여 횟수 등이 제시되어 있다.

달 뒤인 동년 12월 22일에는 특히 외국 군인에 대한 계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가적 단서를 붙여 수정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장 이상으로 공훈이 특출한 경우 태극무공훈장 대신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훈장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²⁷, 이 기준은 원칙적인 것으로 특별한 공훈이 있는 자에게는 공훈 여하에 따라 변경 수여할 수 있다는 것 등의 조건도 부기하였다. 구체적인 훈장 수여 기준안은 <표 17>과 같다. 태극무공훈장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급 고하에 따른 훈장 수여는 특히 2번째의 수정된 기준이 최우선의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기 단서에 따라 계급에 따른 기준을 뛰어넘는 훈장 수여자는 그만큼 뛰어난 전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표 17 '무공훈장수여기준에 관한 건'의 세부내용

훈장		1951년 10월 안	1951년 12월 안
태극	금성	5성장군	대장
	은성	4성장군	중장
	무성	3성장군(상)	소장
을지	금성	3성장군(하)	준장
	은성	2성장군	대령
	무성	1성장군	중령
충무	금성	대령	소령
	은성	중령	대위
	무성	소령(상)	중위
화랑	금성	소령(하)	소위 이하
	은성	위관급이하	
	무성		

훈장부에는 각 수여자별로 훈기번호와 훈장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훈기번호는 일종의 발급순서로 훈기증

에 기록되며 해당 건 전체가 삭선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빠지지 않고 훈장부에 기재된다. 이에 비해 훈장번호는 실물 훈장 발급 시 뒷면에 새겨지는 것으로 원래는 제작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훈장부에 기재된 훈장번호는 1번이 가장 빠르고 362번이 가장 늦은 번호인데, 이 사이에 빠진 번호도 여럿 있다. 동 발급 건에 대하여 분실 등을 사유로 재발급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훈장번호가 부여된다. 훈장부에 훈장번호는 309건(미기재 78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1961년 7월 3일 후 발급 건은 기재된 경우가 없다. 1951년, 1955~1959년 발급 건은 빠짐없이 기재됐으며, 1960년까지는 기재 비율이 높다(308건 중 285건, 92.5%), 1954년(62건 중 13건 누락)과 1961년(46건 중 22건 누락)은 훈장번호의 누락 비율이 비교적 높다.

훈장부의 훈장 수여 시기와 훈기번호의 순서는 일치하고 훈장번호 역시 대체적으로 수여 시기를 따라 가지만 다소 불규칙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박노규 대령 수여 건은 훈기번호가 2번으로 수여 시기가 더 글라스 맥아더 장군 바로 다음이지만 훈장번호는 219번으로 상당히 늦다. 훈장부에는 이 수여 건에 대하여 “우선 약장 및 훈장증을 그 유족에게 수여케 하고 정장은 추후 수여키로” 했다는 1951년 4월 12일의 기록이 있으며, 이어서 “정장(제219호)을 국방부 인사과로 송부 전 달케 하였”다는 1955년 12월 6일의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재발급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수여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실물 훈장 번호가 부여된 사례가 적지 않다. 실

27 이에 따라 1951년 12월 22일 개정된 「건국공로훈장령」 제2조에 “태극무공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1등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신설 조항은 1950년 9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 태극무공훈장 대신 건국공로훈장 1등급(중장)을 수여한 이후 태극무공훈장을 소급 수여하지 않은 사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 1월에 민간 군사유물수집가의 제보에 따른 한국 국방부의 조치로 맥아더 기념관(MacArthur Memorial)에 현 제식의 태극무공훈장이 전달되었다(박종래 2024:342-346).

28 훈장부 기재 기준 위관 이하 수여자(수여일순)로는 심일 육군중위, 이명수 일등상사, 김용신 육군이등병, 홍재근 육군이등병(이상 「무공훈장수여기준」 초안이 작성된 1951년 10월 이전), 김교수 육군대위, 김한준 육군대위, 안낙규 일등상사, 김옥상 육군일등병, 허봉익 육군대위, 백재택 일등중사, 최득수 일등중사, 김만술 육군소위 등이며 영관급으로는 박노규 육군대령, 함준호 육군대령, 김용배 육군대령, 최용남 육군중령, 김성은 해군대령(이상 1951년 10월 이전), 권동찬 육군대령, 한신 육군대령, 김경진 육군소령, 조재미 육군대령 등이다. 금성태극무공훈장을 받은 김만술(대위 예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성훈장을 수여받았다. 6·25전쟁 관련 한국군 태극무공훈장 수여는 총 86회 74명(12명 2회 서훈)에게 이루어졌는데(나종남 2021:44), 인원수 기준으로 위관이하 12명(16.2%), 영관은 9명(12.2%)으로 비장성 군인 21명(28.3%)에게 수여되었다. 장성은 46명(62.2%), 경찰, 무명용사 등은 7명(9.5%)이다.

물의 제작 순서를 따라 부여됐을 훈장번호가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순서가 뒤섞인 채 실제 수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훈장부 기록상의 대체적인 훈장번호-수여 시기 순서보다 현전 실물의 훈장번호가 상당히 늦는 경우 기록상의 수여 시기 이후의 소급 발급 또는 재발급 훈장일 가능성이 높다. 대체적으로 훈장번호 1~50번은 1951~52년, 51~100번은 1952~1953년, 101~150번은 1953년, 151~200번은 1954년, 201~220번은 1954~1955년의 훈장 수여시기를 따라가는 경향이 우세하고, 수량 면에서도 집중적으로 발급된 것에 비해 그 이후의 훈장 번호는 수여시기 등과 맞지 않고 불규칙하다.

표 18 훈장부 기록과 실물의 훈장번호 대조

수여자(종류)	수여일	훈장번호	
		훈장부	실물
손원일(일등)	1951.10.30.	1	1
백선엽(일등)	1951.7.26.	7	7
최용남(일등)	1951.10.30.	13	13
Blackshear M. Bryan (무성)	1951.12.9. 1953.10.1. (재교부)	44	44
백선엽(금성)	1953.4.5.	100	100
한신(무성)	1953.8.27.	143	93
김경진(무성)	1954.6.25.	191	183
이준식(무성)	1954.7.6.	258	258
국군무명용사(금성)	1961.6.6.	-	275
Albert T. Willson Jr(무성)	1958.10.31.	275	-

현재 확인이 가능한 훈장부와 실물의 훈장번호를 대조하여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²⁹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훈장에 대하여 훈장부와 실물의 훈장번호를 대조해 보면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가 6건, 그렇지 않은 경우가 2건이 있다. 일치하지 않는 실물의 훈장번호를 훈장부 기록에서 찾아보면 2건 모두 실물 훈장 수훈자(한신, 김경진)와 각각 동

일한 날짜에 훈장을 수훈한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는데,³⁰ 발급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훈장부 기록을 분석하면 서로 다른 수여건에 대하여 동일한 훈장번호가 부여된 경우가 15건³¹ 발견되며, <표 18>의 국군무명용사 - Albert T. Willson Jr(275호)의 사례를 포함하면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16건이다. 이와 같은 훈장번호의 중복은 앞서 발급된 훈장이 실제 수여되지 않은 채 동 번호의 훈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여했거나 혹은 행정상의 실수로 기발급된 것과 같은 번호의 훈장을 중복 제작, 수여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일부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전 태극무공훈장의 훈장번호가 훈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훈장의 수훈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IV. 결론

이 논문은 기왕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제식과 현전 실물에 대하여 분석 및 고찰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공훈장의 제식 변화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상황에 따라 1950년 10월, 1951년 8월, 1963년 12월, 1967년 2월, 1973년 11월·1984년 1월 제식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 제원을 살피는 한편 각 훈장 제식의 현전 실물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특히 그동안 실물의 현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1950년 10월 제식의 경우 실물과 소장처를 밝히고 일부 훈장의 경우 1952년 7월 미국에서 촬영된 실물 사진을 새롭게 발굴하여 제시한 성과가 있었다. 또한 수여 사례가 드문 태극무공훈장의 경우 현전 실물의 사진을 제시하고 현재 온·오프라인상

29 실물의 훈장번호는 최용남, 한신, 김경진, 이준식, 국군무명용사 훈장은 직접 확인하였고, 손원일 훈장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2009:48, “손원일 제독 일등무공훈장(3D프린팅콘텐츠)”. 문화포털. 2025.8.30. 접속, <https://www.culture.go.kr/tradition/traditional3DContentsView.do?seq=3001196&cPage=1&fromSeq=3001196>에서, 백선엽 훈장은 백선엽장군기념재단 2023:70·74, Blackshear M. Bryan 훈장은 박종래(2024:326)에서 확인하였다.

30 훈장부 기록 기준 한신 훈장 실물의 93호는 1953년 8월 27일 김점곤에게, 김경진 훈장 실물의 183호는 1954년 6월 25일 백재덕에게 수여된 것으로 확인된다.

31 훈장번호 17, 42, 50, 54, 59, 60, 101, 105, 143, 166, 194, 200, 257, 339.

에서 확인 가능한 소장처의 정보를 모두 밝혔다.

둘째, 앞서 살핀 무공훈장 제식 변화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훈장의 패용 방법과 실제 사례를 살폈으며, 태극무공훈장의 수여 현황, 실물의 훈장번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950년 제식에서는 무공훈장의 4개 등급과 2개 중앙 도안이 규정되었고, 1951년 제식에서는 훈장 등급 명칭을 고유화하는 한편 각 등급별로 각기 중앙 도안을 규정하였다. 1963년 제식에서는 5등급 인헌훈장이 추가되고 등급별 수 형태를 변경하였다. 1967년 제식에서는 등급별 중앙 도안을 전통 투구로 통일하였으며, 1973년 제식에서는 그러한 중앙 도안을 유지한 채 훈장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다. 이상의 5개 제식은 중앙 도안 디자인 기준으로 1963년 제식까지의 디자인A와, 1967년 제식 이후의 디자인 B로 구분할 수 있다.

훈장의 패용은 1955년에 제정된 「훈장패용규정」에서 처음 정해졌는데, 이후 1963년 「상훈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실제 무공훈장 등의 패용 사례를 살펴보면 법령에서 규정한 훈장 패용 방법을 큰 틀에서 준수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크고 작은 차이가 엿보인다.

국가기록원 소장의 『태극무공훈장』(1~3권)의 분석을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밝히지 않은 태극무공훈장의 수여 현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밝히는 한편, 실물 훈장 뒷면에 새겨지는 훈장번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훈장부의 내용으로부터 각 등급별 무공훈장의 수여가 대체로 계급의 고하에 따라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51년 말에 제정된 「무공훈장수여기준에 관한 건」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훈장부에 기재된 훈장번호는 총 309건으로 1961년 7월 3일 이전 발급 건에 기록되었다. 훈장번호의 순서는 1954년 전후로는 대체로 수여 시기를 따라가지만 그 이후는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현전 실물의 훈장번호와 비교 결과 일치하는 경우가 6건, 미일치하는 경우가 2건 확인된다. 확인된다. 훈장부와 실물을 함께 살피면 서로 다른 제작 건에

중복된 훈장번호가 부여되는 오류는 16건이 확인된다.

이 논문의 성과를 통하여 호국기념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소장된 무공훈장의 정확한 판별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자신의 생명으로 조국을 지킨 호국영령에 대한 선양 의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저서 및 논문

- 국방부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2017,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 최종결과 보고서』.
- 김유석, 2021, 「6·25전쟁 참전 UN군 공훈자 발굴 연구:천안-조치원 지연작전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10(2), 미래군사학회, pp.21~48.
- 김정훈·황성원, 2013, 「정부 상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일본의 상훈제도 현황 및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3), 한국인사행정학회, pp.107~133.
- 나종남, 2019, 「외국 군인에게 수여된 태극무공훈장에 대한 연구 1950~1975」, 『(학술회의 자료) 6·25전쟁 참전 역사의 발굴, 재조명, 그리고 기억의 방식』, 한국정치외교사학회·한국전쟁학회, pp.59~76.
- 나종남, 2021, 「미국 군인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 분석 :미국 명예훈장(Medal of Honor) 수여현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국학 논집』 53(1), 한국아메리카학회, pp.35~61.
- 박석희·이선영·최정열·조강주, 2014, 「정부상훈제도 개선을 위한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식 도입 방안」, 『행정논총』 52(3),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pp.179~208.
- 박종래, 2024, 「[자료소개] 더글러스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군사』 1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325~346.
- 방종식, 2004, 「육군 상훈제도 개선방안 -한국과 미국의 상훈 비교-」,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백선엽장군기념재단, 2023, 『백선엽 장군 훈장모음집(제2판)』.
- 손규석, 2003,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엄태용, 2025, 「국군묘지의 창설과 초기 운영」, 『군사』 1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203~252.
- 이신재, 2022,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전시 무공훈장 운영 고찰」, 『한국군사학논집』 78(2),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pp.359~388.
- 정병재, 2006, 「우리나라 서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 정재환, 2016, 「우리나라 서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1149, 국회입법조사처.
- 총무부, 1984, 『상훈편람』.
- 총무처, 1988, 『상훈법령연혁집(Ⅰ)(1901년~1964년)』.
- 최영민, 2002, 「대한민국 상훈체제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행정연구원, 2006, 『정부 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정보 훈·포장체계를 중심으로』.
-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1997, 『해군사관학교 박물관도록』.
-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2009, 『(탄신 100주년)손원일 제독 특별전 기념도록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 유품으로 보는 해군의 발자취』.
- 행정자치부, 2003, 『대한민국 훈장제식변천사』.
- 허동욱, 2020, 「베트남파병 한국군의 무공훈장 포상 고찰」, 『군사연구』 150, 육군군사연구소, pp.239~273.
- 황성원·권용수·김정훈·김승언, 2007, 「정부 서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부 훈·포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6(1), 한국인사행정학회, pp.193~234.

원전·법령 자료

- 공보부, 1963.12.14., 「상훈법(법률 제1519호)」, 『관보』 3614.
- 공보부, 1967.2.28., 「상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29호)」, 『관보』 4586(기2).
- 공보실, 1955.11.8., 「훈장패용규정(대통령령 1105호)」, 『관보』 1432.
- 공보처, 1949.4.23., 「훈장도안심의위원회규정(총리령 제11호)」, 『관보』 77.
- 공보처, 1950.10.18., 「무공훈장령(대통령령 제385호)」, 『관보』 398.
- 공보처, 1950.12.29., 「무공훈장령(대통령령 제427호)」, 『관보』 호외.

참고문헌

- 공보처, 1951.5.24., 「무공훈장령(대통령령 제501호)」, 『관보』 476.
- 공보처, 1951.8.19., 「무공훈장령(대통령령 제521호)」, 『관보』 516.
- 국가기록원, 1949,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소장 6.25전쟁 전후 시기 사진(29차)」(철 번호: DTC0002940).
- 국가기록원, 1950, 『태극무공훈장』 1~3권.
- 국무총리비서실, 1951.10.11., 「무공훈장수여기준에 관한 건」, 『상훈법령연혁집(Ⅰ)(1901년~1964년)』, p.125.
- 국무총리비서실, 1951.12.22., 「무공훈장수여기준에 관한 건」, 『상훈법령연혁집(Ⅰ)(1901년~1964년)』, pp.126~127.
- 국무총리비서실, 1951.12.22., 「무공훈장수여기준에 관한 건」(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135105).
- 국방부, 1951.6.18., 「일등무공훈장 수여 상선에 관한 건」(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774248).
- 총무처, 1949.6.4., 국방(4) 「군훈장 약장 제조에 관한 건」, 『국무회의록 보고에 관한 건』(제55회), p.362.
- 총무처, 1949.12.14., 총무(11) 「훈장도안 결정의 건」, 『국무회의록 보고에 관한 건』(제109회), p.695.
- 총무처, 1969.12.19., 「상훈법시행령(대통령령 제4466호)」, 『관보』 5426.
- 총무처, 1971.6.30., 「상훈법시행령(대통령령 제5688호)」, 『관보』 5887(그2).
- 총무처, 1973.11.1., 「상훈법시행령(대통령령 제6916호)」, 『관보』 6589.
- 총무처, 1974.10.23., 「상훈법시행령(대통령령 제7289호)」, 『관보』 6881.
- 총무처, 1984.1.23., 「상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336호)」, 『관보』 9649.
- 행정안전부, 2019.4.23.,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6), 『관보』 19487.

웹자료 및 기타

- “1960년대 태극 무공 훈장 부장”, Cool Breeze, 2025.8.31. 접속, <http://blog.naver.com/anaheim3/223587473608>.
- “대한민국 태극 무공훈장(한국전쟁~베트남 전쟁)”, 또또삼촌의 잡동사니, 2025.8.3. 접속,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bt3840&logNo=221783976444&referrerCode=0&searchKeyword=%ED%83%9C%EA%B7%B9>.
- “무훈 만대에 빛나라”, 1949.7.16. 경향신문, 2면.
- “문경시,故김동수 병장, 인진영 상병 유족에 6.25 무공훈장 전수(문경시 보도자료, 2022.11.14.)”, 문경시 홈페이지, 2025.8.20. 접속, <https://www.gbmg.go.kr/portal/mayorForcus/view.do?idx=1803&mId=0302010000>.
- “수여된 훈장은 근 30만개”, 1967.12.8. 조선일보, 3면.
- “손원일 제독 일등무공훈장(3D프린팅콘텐츠)”, 문화포털, 2025.8.30. 접속, <https://www.culture.go.kr/tradition/traditional3DContentsView.do?seq=3001196&cPage=1&>.
- “임시훈장제정”, 1949.6.26. 동아일보, 2면.
- “임시훈장제정, 전공장병에게 수여”, 1949.6.26. 조선일보, 2면.
- “전쟁기념관 특별기획전시전 ‘룩셈부르크와 85인의 용사들’에서 접한 태극무공훈장에 관한 건”, JR, 2025.8.25. 접속, <https://blog.naver.com/laison/223593341158>.
- “한국군 4등 무공훈장”, 또또삼촌의 잡동사니, 2025.7.27. 접속,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bt3840&logNo=221667858795&referrerCode=0&searchKeyword=%EB%AC%B4%EA%B3%B5%ED%9B%88%EC%9E%A5>.
- “훈장도안모집”, 1949.9.29. 동아일보, 2면.
- “Order of Military Merit”, Korean Medals 한국메달, 2025.11.9. 접속, <https://koreanmedals.com/military-merit>.
- “The George Notarpole Collection”, Korean Medals 한국메달, 2025.11.9. 접속, <https://koreanmedals.com/the-george-notarpole-collection>.

A Study on the Regulations and Extant Objects of the Republic of Korea's Military Decorations

Eom Taeyong Curator, Seoul National Cemetery

taeyongeom@korea.kr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ions and extant objects of the Republic of Korea's Military Decorations. First, the changes in the regulations were classified into five stages—October 1950, August 1951, December 1963, February 1967, and November 1973/January 1984—according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The specifications and schematic details of each regulation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extant objects. Notably, this study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the existence and location of the October 1950 regulation medal, and newly uncovered U.S. photographs of medals whose forms had previously remained unver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gulations and extant objects of military decorations. The 1950 regulation first devised the grades and designs of the medals; the 1951 regulation established unique names for each medal and introduced distinct central motifs by grade. The 1963 regulation added the Incheon Order of Military Merit and altered the ribbon forms by grade. The 1967 regulation standardized grade-specific designs, while the 1973 and 1984 regulations modified the size and design of the medals. The form of medal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Design A (through 1963) and Design B (from 1967 onward). The methods of wearing the medals were prescribed in the Regulation on the Wearing of Orders(1955) and the Act on Honors and Decorations(1963), and this study compared those legal provisions with actual cases of wearing the Military Decorations.

In addition, analysis of the Taeguk Order of Military Merit Register preserved at the National Archives provided further information on conferment practices and the serial numbers engraved on the reverse of the medals. The contents of the register confirm that conferment was largely determined by military rank,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for Conferment of the Orders of Military Merit enacted in late 1951. A total of 309 serial numbers were recorded in the register, all corresponding to conferments prior to 1962. While the sequence of serial numbers generally reflected conferment dates until around 1954, irregularities became more frequent thereafter. Comparison with extant objects confirmed six matches and two mismatches between serial numbers in the register and medals. Moreover, examination of both the register and extant objects revealed 16 cases in which identical serial numbers were assigned to different medals.

Keywords Military Decorations of ROK, Taegeuk Order of Military Merit, Orders and Awards System, Korean War, Vietnam War

Received 2025. 9. 15. | Revised 2025. 10. 29. | Accepted 2025. 11. 7.

